

민영교도소 불교계엔 '먼산'

정부 "종교계 참여토록 설치 확대" ... 조계종 "검토중"

가톨릭·개신교 본격 추진 단계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확대 발언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8월 23일 "개신교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설치를 확대 하겠다"고 밝혀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논의를 재촉했다.

김 장관은 변호사 시절 개신교 계가 결성한 재단법인 '아카데미 사각 김삼환 목사' 이사로 참여,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다.

1995년부터 추진된 개신교 교도소 설립사업은 2001년 아카데미가 출범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

했다. 아카데미는 현재 정계와 재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65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재정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소자와 가족들을 연결시키고 교도소 옆에 공장을 설치, 자활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종교계에 민영교도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은 교화실패와 과밀수용 문제 때문. 브라질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 1984년 천주교에 '휴마 이타 교도소'를 천주교에 위탁했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도소는, 브라질 교정행형의 평균재범률이 70%를 웃도는데 비해 출소자 재범률을 4% 가까이 낮췄다. 브라질 정부로서는 종교계가 민영교도소를 운영, 재정적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재범률까지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아카데미는 민영교도소를 '기독교교도소'로 부르며 성경에 기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신앙훈련 등)이 운영된다고 소개하고 있어, 개신교 선교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신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지난해부터 50명 규모의 민영 소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는 현재 교구차원에서 민영 교도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교회의 등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한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을 계기로 민영교도소와 관련한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재정확충방안"이라며 "개신교측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경우 설립에만 300억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작성한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시설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원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로 규정, 정부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는 많은 토지를 소유, 더 좋은 설립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특수교도소 및 소규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종교 분리 및 종교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설립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립되면 많은 경력을 축적한 교정인 불자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경내지 인근개발 '심의후' 가능

전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에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경내지 주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이 부적합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전통사찰 및 주변 환경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전통사찰 지정 및 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보호,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주요 개발계획, 보수정비예산 지원신청 대상 전통사찰 선정 등을 관장한다.

전통사찰로 등록할 때 시·도지사는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도면으로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지을 스님 단식 끝내

정부, 공사중단 약속

청와대가 지을 스님에게 사과하고 고속철 전성산 구간 공사의 잠정 중단을 약속하면서 58일 동안 이어진 스님의 단식정진은 8월 26일 끝을 맺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이 8월 25일 지을 스님을 사과방문한데 이어, 불교계와 불교계, 환경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26일 '전성산 구간 원호터널(13-3, 13-4공구) 공사를 항소심 판결까지 중지하고 지을 스님도 단식을 중단한다' '재판결과에 승복한다'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을 스님도 26일 오후 제3차 단식을 회향했다.

불교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9월부터 관동구간 현직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을 꾸리게 되며 그 결과는 부산 고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혜초 종정 추대 법회

9월 6일 봉원사서

태고종 제17세 종정 혜초 대종사 추대법회가 9월 6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영산재보존회 여산스님들의 집전으로 종조 태고보우국사와 역대 종정, 선조사 스님들에게 종정 취임을 고하는 대례의식이 불교 전통의례로 봉행된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독 루쉬사원

자매결연

합천 해인사와 독일 로쉬(Lorsch) 수도원이 9월 4일 오후 6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번 결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가 지난 2002년 세계유산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권고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갖는 결연식이다. 결연식을 계기로 해인사 고려판단대장경과 로쉬 성서 비교 연구 △해인사 장경각과 로쉬 왕의 성당 비교에 대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10월 6-11일), 고려팔만대장경 출판권 전시 △한·독 학생문화교류 사업 및 박물관 실습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연식에는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웨퍼 로쉬 수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02)737-0090 대표 737-8881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별세

8월 27일 '동국대장'

前 대한민국의학원 회장과 동국대 경복대 총장을 역임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무애(無碍) 서돈각(徐墩珪) 박사가 8월 24일 저녁 경희대의료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5세. 관련기사 3면

영결식은 27일 동국대 불상 앞에서 '동국대장'으로 열렸으며, 유해는 다비절차를 마치고 풍도사 서울 포교당인 구룡사에서 49재를 지낸 뒤 전북 부안 기족 납골묘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삼보일배로 역사왜곡 항의

현직 교사 100여명은 8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공원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며 탑골공원을 삼보일배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민족의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왜곡도 막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삼보일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박재관 기자

'할'

막떠나는 열차를 타려다
 뜯어진 한쪽신발 보고
 또 한쪽신발마저

간디는 던져준다
 수행자라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락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 · 조태호



황금잉어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을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향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상가 불범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시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종생제도에 헌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앞도려 상배 올립니다.
 금일 재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뵈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동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랜 행실도, 신이담, 동종문, 한국인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름행실도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담(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평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 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립(申勳) 장군의 금(金)동곳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를 하여 깨닫고 한다. 잉어 꿈은 수배를 달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하 상류의 용문(龍門)의 거센 물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이는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룡문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룡한다는 전설에서 기어 용문 또는 등룡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장호지나 원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겼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이라 하여 과거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시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주문방법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배비용은 별도부담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